

급수횟수를 늘려 비유량을 증가시킨다

이윤창 역
(본 회)

뉴삼사의 중핵농장에서는 비유돈에 대해 1일 5회 이상의 급수를 수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이 많이 드는 일이다. 그러나 이 작업에 의해 비유량 및 이유총체중이 증가했다. 현재 뉴삼사의 고객 중 일부에서도 비슷한 시도를 준자동화하고 있는 농장이 있다.

1. 급수량과 모돈의 음수량

이 고안은 니플형 급수기에서의 모돈의 음수량 연구결과로부터 나왔다. 뉴삼사의 분만돈사의 니플급수기는 표준이 2ℓ/분의 급수량이었지만 실제 급수량에는 돼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유 후의 모돈은 스톨 전방의 사조에 직접 급수되고 있다. 관리자는 급수할 때마다 모돈이 일어나서 물을 마시는데 생각이 미쳤다. 모돈은 방수에 대해 반응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급수량은 비유중의 음수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어 왔다.

그들은 사조 상부에 음수용 파이프를 부착하여 수동 파이프로 급이 후 및 식간에 급수를 했다. 급수량은 모돈의 음수량에 따라 주고 비어있는 사조는 4~5ℓ의 용량으로 물이 남아 있어도 가득 채우도록 한다. 목적은 모돈을 일으켜 물을 마시도록 하는데 있다.

이 작업에 의해 모돈의 비유량이 증가하고 자돈총이유체중이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유총체중의 계절적 변동도 줄어들고 한여름에도 채식량의 저하를 보이지 않았다. 중핵농장의 바닥은 콘크리트제이기에 습기가 많아 지저분해진다. 그러나 빈번하게 급수를 실시한 후부터는 스톨 바닥보다 상태가 좋아졌다.

사료급여량을 분만 후 급격히 증가시키면 유방염·무유증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분만 직후에는 식욕이 감퇴한다. 이 시기의 관리를 잘못하면 영향은 비유기간중에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최초 3일간은 2kg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주도록 한다. 분만 후 7일째에는 1일 4kg, 14일째 6.5kg, 21일째 8.5kg 마지막주에는 9kg까지 증가시킨다.

2. 비유중의 사료급여량

비유중의 사료급여량은 기본적인 규칙에 따라 결정된다. 사료급여량은 분만에정일 5일 전부터 줄어든다(표 1). 이는 분만 후의 체식량을 늘리기

〈표 1〉 비유중 모돈의 사료급여량(kg)

일	오 전	오 후
분만전 5일, 4일	3.0	0
분만전 3일, 2일	2.0	0
분만전 1일	2.0	0
분만에정일	1.0	0
분만후 1일, 2일, 3일	1.0	1.0
/ 4일	1.5	1.0
/ 5일	2.0	1.0
/ 6일	2.0	1.0
/ 7일	2.0	2.0
/ 8일	2.5	2.0
/ 9일	3.0	2.0
/ 10일	3.0	2.0
/ 11일, 12일	3.0	3.0
/ 13일, 14일	3.5	3.0
/ 15일, 16일	4.0	3.5
/ 17일, 18일	4.0	3.5
/ 19일, 20일	4.0	4.0
/ 21일, 22일	4.5	4.0
/ 23일-28일	5.0	4.0
소 계	108.0	80.0
비유기간중 총급여량	188.0kg	

위해 필요하다.

분만 전 5일째에는 오전중 3kg, 오후에는 사료를 주지 않았다. 다음날에도 마찬가지로 급여량, 3일째에는 오전중에 2kg, 오후에는 주지 않는다. 2일째에는 3일째와 마찬가지로, 분만에정일 및 그 전날에는 오전중 1kg만 사료를 급여한다.

사료급여량을 분만 후 급격히 증가시키면 유방염·무유증 등의 문제를 일으키기 쉽다. 또한 분만 직후에는 식욕이 감퇴한다. 이 시기의 관리를 잘못하면 영향은 비유기간중에 계속 이어진다. 따라서 최초 3일간은 2kg을 아침, 저녁으로 나누어 주도록 한다. 분만 후 7일째에는 1일 4kg, 14일째 6.5kg, 21일째 8.5kg 마지막주에는 9kg까지 증가시킨다.

물론 이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산자수가 많은 모돈에게는 비유 후반 10일간 추가사료를 20분 이내로 준다. 그리고 급여 후 2시간동안 3일 이상 사료를 남기는 모돈은 식욕을 잃은 것으로 판단하여 급여량을 절반으로 줄인다.

중핵농장의 경우 코머설농장과는 유전적 개선 상태가 다르고 산차구성도 검토가 상당히 많다. 그러나 이 급여법은 분만돈사에서 98%의 모든 품종의 모돈에게 적합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Pig International)